

# 해남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대폭 확대

### 단체 유치엔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 등 공격적 마케팅 연말 여행사에 포상지원금... 축제장 방문만 해도 실적 인정

해남군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는 관광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여행사 등에 주는 인센티브(지난해 1인당 8000원)를 올해 3월부터는 1만~3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1억원으로 증액하고,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해남군 관광인센티브는 25명 이상이 당일과 1박~2박 이상 숙박할 경우 지원금을 차등화해 1만~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연말에 누적 유치 관광객수가 많은 여행사에 대해 포상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국내 여행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주일 전까지 기간, 인원, 방문지, 주관 여행사, 체류일정 등을 담은 여행사전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행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광지 등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행기간 동안 해남 관내 유료관광지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축제기간 동안에는 축제장을 방문해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해남군 관광과(061-530-5852)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운영하게 됐다"며 "전국 여행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이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해남을 방문하는 여행사에 제공하는 관광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해남 땅끝마을 땅끝탑. (해남군 제공)

## '완도 수산물 서울나들이' 행사 개최

### 군, 26~28일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서

완도군이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이벤트 광장에서 '완도 수산물 서울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되는 완도산 해조류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조류는 각종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미역(사진), 다시마 등에 함유된 알긴산 성분이 몸속 중금속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완도군은 이번 행사에 해조류와 전복, 광어, 건어물,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비파 등을 시중 가격보다 5~40% 낮은 가격에 선보일 예정이다.

완도군은 또 해조류와 완도 특산물 무료 시식회를 열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완도 해조류와 전복 등의 가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



이이다"며 "소비자들에게는 믿음,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완도군, 독거 노인 '안전 돌봄서비스' 추진

### 5개 읍·면 295가구에 화재 감지 센서·응급알림 벨 설치

완도군이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안전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은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와 응급 알림 벨을 설치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알려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5개 읍면 295가구에 제공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완도군 전지역 600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52명의 생활 관리사가 완도군 12개 읍·

면 1298명의 독거노인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 급식과 연계해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재가방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는 일상생활 및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193가구에 제공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30%를 넘어선 만큼 노인돌봄서비스 등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에 더욱 더 힘써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해남군, '명량역사체험마당' 7월까지 개최

### 우수영 울돌목서 전 세대 즐길거리 등 프로그램 다채

충무공 이순신의 명량대첩 현장인 해남 우수영 울돌목에서 명량역사체험마당이 오는 7월까지 열린다.

명량역사체험마당은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과 명량대첩을 널리 알리고 각종 체험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매년 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역사 체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체험마당은 오는 7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열리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수영 관광지 내에 조성된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는 전통대장간·짚풀공예·이순신 어복쓰기 및 탁본 찍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문화유산인 우수영 강강술래 공연, 전라우수영 성문을 지키던 조선 수군의 근무교대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수문장 교대식, 우수영 부녀자들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우수영 부녀농요 공연 등도 펼쳐진다.

울돌목의 명물이자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인 뜰채 송어잡이도 울돌목바다(진도대교 교각 옆)에서 관람할 수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음악분수·미디어파사드 운영

진도 쏘라비 호텔&리조트의 개장(7월 예정)을 앞두고 진도군이 향토문화회관 내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한다.<사진>

진도군은 지난해 4월부터 예산 9억여 원을 투입, 진도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화·창 풍경길 만들기 조성사업 일환으로 향토문화회관에 음악분수와 미디어파사드를 제작·설치했다.

군은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에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연회를 가졌다.

음악분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산으로 지정된 진도아리랑과 새타령 등 다양한 음악에 맞춰 화려한 LED 조명과 물줄기가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20분 동안 선보인다.

미디어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건물의 외벽을 뜻하는 파사드(Facade)의 합성어로 빔프로젝터를 이용해 건물 외벽에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다.

향토문화회관 전면에 진도아리랑, 강강술래, 씻김굿 등 진도의 문화·예술과 관광명소 등을 스펙터클한 빛의 예술로 표현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 진도군, 어린 전복 6만여 마리 등 수산자원 방류

진도군이 수산자원 회복과 어린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방류사업을 했다.

24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3600여만 원을 들여 임회면 죽림리와 조도면 서거차도·맹골도 등 해역에서 어린 전복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전복 치배는 적정 크기인 4cm까지 성장한 것으로 해양수산과

학원의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우량 종자다.

수산자원 조성은 물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도군은 전했다.

군은 올해 1억8000여만원을 들여 감성돔과 꽃게, 전복 등을 방류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QR 코드 이미지

**예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그린알로에

#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